

第47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0月25日(水) 午後5時

第47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鄭恩秀)

(16時49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지금부터 제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47회 임시회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로 벌써 찬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또한 지금은, 봄부터 수고하고 땀흘린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도, 1년 동안 씨앗을 뿌

리고 애써 가꾸어온, 땀의 결실을 거두어 들여서, 구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유엔 창설 50주년에 즈음한,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세계사에서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매일 지면을 메우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며 허탈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도도히 흐르는 민주자치의 큰 흐름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며, 오로지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바라는, 민주대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의 꿈과 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구민을 위한 성북 의회인이라는, 일체감으로, 우리 성북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